



농림축산식품부

동 정

농민을
위한
농정

2020년 5월 2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경영과 과 장 김희중(044-201-2251), 사무관 김송원(2284) / 제공일: 5월 27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김현수 장관, 배 저온피해 현장 점검

- 천안 소재 농가 피해 상황 점검 및 신속한 지원 강조 -

-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.27일(수) 오후 충청남도 천안 소재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, 피해조사 진행 등 복구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.
- 김현수 장관은 “개화기 꽃샘추위로 배 착과가 저조한 과원이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”며, “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지자체 관계자에게 “저온 피해를 본 과원의 사후 관리가 소홀하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 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배수로 정비, 병충해 방제 등 기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지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4월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지자체 정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약대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,
- 7~8월 착과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6월 둘째 주부터 착과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